

오지영 친정팀 경기 출전 불가에...배구팬 '부글부글'



오지영

AI페퍼스-GS칼텍스 트레이드하며 합의 조항에 넣어 '논란' "스포츠 공정성 훼손...승부조작이나 다름없어" 비난 잇따라

광주 AI페퍼스와 GS칼텍스 여자프로 배구단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두 구단이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35)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전소속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페퍼스 구단은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홈 경기에 오지영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트레이드 과정에서 양 구단이 해당 조항을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구단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건 지난달 26일이다.

당시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페퍼저축은행은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고 GS칼텍스에서 뛰던 오지영을 영입했다.

GS칼텍스는 논의 과정에서 '즉시전력인 오지영을 이같이 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출전 불가 조항 삽입을 요청했고, 페퍼저축은행은 이에 응했다.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 조항은 트레이드 후 첫 맞대결이 열린 23일 알려졌다.

오지영은 양 팀 합의에 따라 23일 GS칼텍스전을 뛰지 못했다. 올 시즌 남은 두 차례 GS칼텍스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실제 오지영은 구단의 사적 계약에 따라 3경기 출전 기회를 박탈당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기록 타이틀 경쟁 등 선수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당했다.

양 구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OVO도 오지영 트레이드 당시 GS칼텍스전 출전 불가 조항 삽입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 관계자 역시 "트레이드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영 트레이드는 무엇보다 프로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

팬들은 두 구단이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배구 팬은 "페퍼스와 GS칼텍스 구단이 승부 조작이나 다름 없는 행위를 했다"면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주 AI페퍼스의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킨 구단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페퍼스 팬은 "페퍼스가 취약한 팀 전력에도 참신함과 패기를 앞세워 코트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팬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아무리 팀이 연패에 허덕여도 부당한 GS칼텍스의 트레이드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페퍼스 구단 관계자는 "트레이드 조항을 납득하지 못하는 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GS칼텍스의 트레이드 조건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지만 팀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GS칼텍스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오지영 못 나왔지만...페퍼스 홈 첫승 선물

V리그 GS칼텍스에 3-1 승

광주 AI 페퍼스가 올 시즌 홈 팬들에게 첫 승을 선물했다.

페퍼스는 지난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홈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세트 스코어 3-1(26-24, 24-26, 25-23, 25-23)로 꺾었다.

페퍼스는 4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왔고 팀이 작성 중인 여자부 홈 최다 연패 기록을 '13'에서 멈춰 세웠다.

페퍼스의 홈 승리는 지난해 2월 11일 흥국생명전 이후 346일 만이다. 페퍼스의 올시즌 전적은 2승 21패.

니아 리드가 양 팀 최다인 29점(공격 성공률 44.83%)을 뽑아냈고 박경현이 17점(48.48%), 이한비가 13점(34.29)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다.

리드는 피말리는 승부가 펼쳐진 3,4세트에서 마지막 점수를 뽑아내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리그 최하위인 페퍼스는 위기 관리 능력에서 리그 3위 GS칼텍스를 앞섰다. 20점대에 올라서면 무너지는 고질적인 패턴에서 모처럼 벗어났다.

1세트 23-24에서 이한비의 결정적인 오픈 공격으로 동점을 만든 뒤 GS칼텍스 강소휘의 공격 범실로 25-24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은 뒤 이한비의 결정타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광주 AI페퍼스 선수들이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GS칼텍스전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2세트를 두스 접전 끝에 24-26으로 내준 페퍼스는 3세트에서 뒷심을 발휘했다. 23-23 혼전 상황에서 니아 리드의 후위공격이 작렬하면서 24-23으로 승기를 잡은 페퍼스는 또다시 리드의 오픈 공격으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4세트 24-22에서 박경현의 오픈 공격

이 블로킹에 막히면서 한 점까지만 추격을 허용했으나 리드의 후위 공격이 GS칼텍스 코트에 꽂히면서 세트를 쟁겼다.

GS칼텍스 주포 모마는 지난 20일 현대건설전에서 다리를 다쳐 이날 결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1위 질주



광주도시공사 송해수가 21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강경민 13골...삼척시청에 30-27

광주도시공사가 올시즌 6경기만에 리그 1위에 올랐다.

오세일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1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30-27(15-15, 15-12)로 이겼다.

이날 경기 전까지 광주도시공사와 삼척시청, SK 슈가글라이더즈 세 팀이 나란히 4승 1무로 공동 1위였는데, 광주도시공사가 시즌 5승 고지에 선착하며 단독 선두가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6경기(5승1무, 승점 11) 무패를 기록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이 13골, 5어시스트로 맹활약.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삼척시청에 패한 아픔을 설욕했다. 강경민은 경기 MVP에 선정됐다.

클리퍼 박조은은 전반에만 6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13세이브(방어율 37.1%)로 팀 승리를 굳게 지켰다. 박조은은 리그 통산 12호 700세이브 고지에도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에 강경민, 서아루가 9골을 합작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삼척시청 김민서가 6골을 기록하며 추격에 나서 15-15로 전반전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19분 22-19에서 강경민이 골을 터뜨려 4점차로 삼척의 추격을 멀찍이 따돌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전남 씨름 "설날만 같아라"

영암군씨름단 3명 장사 등극...백두 김민재·한라 차민수·금강 최정만

구례군청 선채림·엄하진 여자장사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안방에서 세 명의 장사를 배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24일 영암살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오정민(문경새재씨름단)을 3-0으로 꺾고 꽃가마에 올랐다.

김민재는 백두급의 강자 오정민을 잡채기로 제압, 첫 짜판을 가져왔다. 이어 두 번째 판도 들배지기로 오정민을 제압한 뒤 막판에는 밀어치기로 3-0 승리를 거뒀다.

같은 팀 차민수는 지난 23일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박민규(용인특례

시청)를 3-0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실업 무대에 데뷔해 한라급 3관왕을 차지한 차민수는 올해도 기세를 이어 개인 통산 4번째 장사 꽃가마에 올랐다.

같은 팀 최정만도 지난 22일 금강장사(90kg 이하)에 등극했다.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문형석(수원특례시청)을 3-2로 꺾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5년 만에 설날대회 우승을 차지한 최정만은 개인 통산 16번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선채림과 엄하진(이상 구례군청)은 여자부 장사에 등극했다.

선채림은 20일 여자부 매화장사(60kg 이하) 결정전(3전 2승제)에서 양윤서(영동군청)를 2-1로 꺾고 생애 첫 매화장사 꽃가마를 탔다.



백두장사에 오른 김민재. <대한씨름협회 제공>

국화급(70kg 이하) 결승에선 엄하진이 김다혜(안산시청)를 밀어치기와 잡채기로 쓰러뜨려 2-0으로 승리했다.

엄하진은 이날로 통산 11번째 국화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최민정 동계U대회 4관왕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25-연세대)이 제31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

최민정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 센터 1932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우승했다.

앞서 여자 1500m와 500m에서도 1위에 오른 최민정은 이로써 개인전 전 종목과 계주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현재까지 금메달 4개를 딴 선수는 최민정이 유일하다.

그는 이날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1분38초

10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진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는 최민정-김건희-박지윤(한국체대)-서휘민 조가 4분12초557로 중국, 미국, 캐나다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1000m와 5000m 계주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1000m 결승에선 장성우(고려대)가 1분25초937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이정민(한국체대·1분26초029), 김태성(단국대·1분26초071)이 각각 2, 3위로 메달을 휩쓸었다.

남자 계주 결승에선 장성우-정원식(경희대)-김태성-이준서(한국체대)조가 7분10초689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끊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1-18(수) ~ 2023-01-29(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